



월
간

두 엄 누리 회 보

www.duem.or.kr

제14호 2004년7월26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2004년도 부산물비료 생산자반 교육실시

국가 전무 행연수원 농업 연수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부산물 비료 생산자반 교육이 지난 7월6일부터 7월 8일 까지 3일간 실시되었다. 올해 농협 납품 지정업체로 처음 참여 하게된 업체를 중심으로 총67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우리 협회는 12명이 참석하였다. 이 교육은 그동안 신규 참여 업체를 중심으로, 기존 업체는 자율참여로 진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농협납품업체 지정 시 교육 수수료증을 첨부하도록 하게 되고 기존 회원들도 2년에 1번씩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바뀔 예정이다. 또한 농협 납품지정업체 운용기준이 대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 계약 이전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출하전 성분검사 시 유해성분 검출 원인

출하 전 성분검사나 비료단속 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분과 유해 성분 검출이다. 퇴비는 꼭 발효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정 수분이 있게 마련인데 그 규제 수치가 50%로 낮은 편이어서 완제품

출하 시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그 외 사용 가능한 원료로만 만든다면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간혹 사용가능한 물질만 사용한 경우라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돈분에 경우 구리 및 아연이 턱없이 많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돼지의 사료에는 육질개선이나 증체효과 증대 및 성장촉진 등을 이유로 첨가제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 물질 중에서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유해성분 중 납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산물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어나고 있다.

그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명태의 내장과 오징어의 내장 그리고 오징어의 먹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아연과 니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원료 반입 장소에서 사용자 모르게 이러한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농도가 짙은 폐수를 고액 분리하기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응집제 중에는 값싸고 사용이 편리하다하여 고분자 응집제외에 황산반토

나 염화 제1철, 염화 제2철 등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출하전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다른 검사성적서가 발생될 때에는 빨리 최근 들어온 원재료의 발생처를 역 추적하고 원료의 성분검사를 다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인천 등 톱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는 경우는 거의가 유해성분 혼입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농협납품 지정업체에서 지정이 해지된 업체 중에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싼값에 유통시키거나 비 포장상태로 대량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업계의 걱정거리로 남아있다.

단체표준 인증

우리 협회가 2005년까지 제도 도입을 하여 시행하기로 한 단체표준인증은 그간 준비하여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단체표준 규격 설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아 과연 우리 분야가 이 제도 시행이 꼭 필요한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득과 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산업 표준화법을 권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체표준의 활용목적은 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표준의 활용 목적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대기업 납품시 부품 등의 공용화 표준을 설정한다.

셋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 보건, 안전 등을 위한 표준을 정한다.

넷째, 저급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통구조 등 우리 업계가 처해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부산물비료의 현 상황

우선 각 산업분야별로 관련법이 있고 그에 따른 기본 규격은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 함에도 단체 규격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앞서 밝힌 것 같이 우선 구매권을 갖기 위하여 생산자가 스스로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제품은 정부가 보조지원을 하는 품목으로 모든 업체가 보조사업에 의존 하고 있다.

둘째, 제품의 특성상 판매량에 대다수가 농협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정부를 대신하여 농협이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인 농민을 대신하여 납품업체 지정등 운영기준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리비용일부를 생산자가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산업 표준화 법에서 중시 여기는 시판품의 조사 등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이미 별도의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넷째, 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고루 분

포되어있고 거의가족단위 운영이거나 아니면 연간 매출 10억 미만에 영세업체이다.

다섯째, 현재 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약25%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장인데 이곳의 운영실태를 보면 화학비료와 같이 적자를 감안한 대 농민 환원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아래 단체 표준인증을 실시한다면 당장 일어날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단체표준 인증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단체표준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업무부담이 크고 엄격하여야 한다.

둘째, 단체 표준 규격은 그 시작이 생산자, 소비자, 또는 이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제정 되는 것인데 현재도 수분 규제, 발효도 등 비료 관리법상 규정규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으므로 자발적 합의는 커녕 이론적으로도 입증된 규격을 설정하기 어렵다.

셋째, 우리 농업 실정으로 보아 비료를 정부에서 금액 보조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의 생산성 때문인데 단체 표준 인증 업무를 위해 인증기관은 시험실 및 인증요원과 제품검사 요원의 확충 등으로 막대한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그 비용은 제품 원가에 반영된다. (토양개량제 같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상관없다)

넷째, 대다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생산자가 인증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대표자(1박2일 480,000원), 부과장 간부(2박3일 612,000원), 품질관리 담당자(17박21일 1,870,000원)교육 및 인원확보에 생산비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다섯째, 현재도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재 활용을 돕기 위해 1일 1.5톤 이하 생산을 법 예외 규정으로 정하여 생산업체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여섯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제도를 시행해도 농협을 통한 현 체제의 구도를 탈피할 수 없고 생산자의 득은 전무하다.

이상 열거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도 과연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한가는 모든 생산업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루 빨리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 업체에 자세히 알리고 이 제도를 시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든 업체가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보조 사업은 대 농민 지원사업이지 업계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제도에 더 이상 우리 업계가 허겁지겁 따라가며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입회원 명단

경기도

(주)성주농업회사 대표자: 정 호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2-1

비료담당자: 임 성길

※양계농장으로 산란계 약 45만수 사육
발효시설은 교반식으로 직영 처리 하
고 있음

충청북도

(주)농경 대표자: 구 창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5-3

※2000년 유망 중소기업선정, 2002년 기
업부설 연구소 준공, 발효시설은 교반식
특별회원

진영기계공업사 대표자: 추 문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487-2

※포장기 및 발효기 제조업체로 특별회원
으로 가입 특히 올 년말부터 적용하는
포장기 이물질 제거장치(자석설치)설치
업체로 일괄 설치를 계획으로 협상하고
있는 업체임 (전화 055-345-7739)

상반기 농협납품 신규지정업체 명단

경기도

푸른농장 대표: 황 국현

경기도 이천시 울면 월포리 714-21

신기농장 대표: 이 원형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25

원삼축분 대표: 최 윤수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가재월리 820

전라북도

영일농산 대표: 신 영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43-1

전라남도

풍년비료 대표: 조 진숙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474-2

토비 대표: 김 종만

전남 화순군 청풍면 한지리 3-2

풍원비료 대표: 조 정만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71-5

경상북도

(주)포포텍 대표: 박 두극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동리 71-5

도 지회 소식

경상북도 지회 개최

지난 7월 15일 대진 해수욕장에서 경북
지역 도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개업체
대표가 만나 서로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
는 보람된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회 개최

협회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
던 여주영농의 서상열 이사님이 개인 사
정으로 인하여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경
기 지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간 임시
로 21세기 영농조합 은민석 이사님이 수
고 하시었고 요번 7월 20일 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기지회 임원진이 결정되었습니
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 합니다.

회장 향림 바이오텍 대표 한 영수

전화: 031-637-2610

총무 성주농업 임 성길 부장

전화: 031-652-0317

이번 경기도 지회장을 맡은 한 영수이사
님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중앙회 수석 부
회장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많은 활동
이 기대 됩니다.